

종자선별 시스템 허술...조직적 '종자 비리' 눈 먼 감시

노회용 동구청장 기소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생산물량 수기 작성...임의조작편 적발 불가능 종자원 결핵기 점검에 감독·통제기능도 엉망 공직기강 해이 심각 속 연루자 10여명선 예상

국립종자원 직원들의 오랜 기간 '종자 비리' 사건이 경찰 수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국립종자원의 '종자 빼돌리기' 비리 사건은 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 뿐만 아니라 우량 종자를 공급하는 종자원 종자 선별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수년간 공공연하게 '종자 장사'가 행해지는데도, 해당 기관의 감시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종자 선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내부 통제시스템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종자원 내 불법 종자 유통을 단속해야

할 종자원 직원들이 거꾸로 돈을 받고 '종자 장사'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립수산물부등은 지위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비리 연루자 늘어날 듯> 전남지방경찰청은 국립종자원 직원들의 종자 장사자 개인이나 단체를 단속하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국립종자원 전국 6개 지원의 정선(精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21)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쌀, 보리, 콩 등 종자 20t(가량 3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유통업자나 농민들에게 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를 확인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자만 1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이들 통장 내역을 토대로 3억원 상당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잡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자 뿐 아니라 종자를 쌓아놓는 팔레트·장비 교체에 따른 중고 품 처리·종자 포대 등을 중고로 팔아챤 거대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상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목인이나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 먼 감시 시스템> 종자 정선 업무의 경우 선별기 등 전기·기계류 다루는

특성상 다른 부서에 순환 근무 가능성이 적어 종자원 다른 지원으로 옮겨더라도 비슷한 업무를 맡는 사례가 많고 종자 선별·출고까지 담당자들이 책임지는 형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에 적발된 A씨 등도 계약 재배 농가로부터 들여와 검사팀의 품질 검사가 마무리된 종자가 공급되면 종자·부산물 등으로 선별해 농가에 공급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의 업무 특성상 종자 물량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선별 과정을 거쳐 농가에 공급할 종자와 매각해야 할 부산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종자원의 감독 통제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종자원은 매년 2차례 정선 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시설안전 ▲부자재 현황 ▲시스템

등록 현황 등을 점검하는 데 그쳤고 경찰 수사로 팔레트 등 부자재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허술한 감시 시스템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종자원측도 "담당 직원이 정선 과정에서 종자와 매각할 부산물 규모를 손으로 작성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조라 줄곧 지켜보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종자원 내 불법 종자 유통을 단속하고 신제품을 보호하는 특별사법경찰인 '종자경찰'이 있음에도, 정작 자신들의 비리 행위를 밝혀내는데는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생산된 종자와 부산물 양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함평=황은화기자 hwang@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 정장의 직무 정지로 동구는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준진)는 2일 업무에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배달 비용 1700만원을 포함해 1억46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시가 기준으로 1억4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것으로 공소 사실을 규정했다. 노 구청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임영을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검찰은 또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뇌물 공여자 이모씨와 선물 배포자 심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정장이 지난해 8월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고 이씨가 실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환경이나 주차장 관련 사업을 수주할 것을 기대하고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1억2900만원 상당(할인에 포함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 과일 등을 270여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구청장은 선물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도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선물 배포 규모에 걸맞은 '과태료 50배 폭탄'도 우려되고 있다. /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종자비리 엄정 수사" 전농 광주전남연맹 촉구

국립종자원의 '종자 장사'가 드러나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종자의 중요성을 간과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무능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연맹)은 3일 최근 수년간 자행된 국립종자원 직원들의 '종자 장사 비리'와 관련, 수사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연맹은 4일 열리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립종자원 종자 도둑질·불량 종자 보급 비리'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추운 겨울 잘 이겨내거라 2일 오전 광주시청 직원들이 동절기 수목보호를 위해 청사 앞 광장의 나무들에 빗짐을 이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학철(43)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종자 비리와 관련) 황당하다. 순진한 농민들은 국가(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무조건 믿고 재배해 왔는데 어떻게 종자 장사를 벌일 수 있는지 여허구니가 없다"며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선별기를 조작해서 품질 나쁜 종자까지 농가에 공급하고 지난 2011년에는 불량 범씨를 공급하는 게 과연 공무원들이 할 짓인가"라며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광주시농민회 회장 오호열(58)회장은 "국립종자원이 보급하는 범씨 등 종자는 민간에서 유통하는 종자보다 발아율과 순도가 우수하다는 신뢰가 농민들 사이에선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농민들이 민간에 비해 평균 20%가량 웃돈을 주고서 국립종자원 종자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건, 국가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종자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잘 관리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국가는 이런 농민의 믿음을 산산히 부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구, 남광주시장상가 불법 원룸 단전·단수

광주 남광주시장 종합상가 내 불법 증·개축된 원룸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진다. 불법 원룸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는 영세한 서민들이 있는 만큼 긴급 생계 대책 마련 등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3일 오후 4시를 기해 남광주시장 종합상가 내 불법 원룸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가 점포를 원룸으로 불법 증·개축, 임대 사업을 벌이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렸지만 시행되지 않던 따라 추가 제재에 들어갔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불법 원룸 54세대에 대한 단전·단수 조

치가 진행되며 현재 11곳의 원룸에서만 세입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동구는 파악했다. 광주시와 소방안전본부도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남광주시장 등에 대한 정밀 안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동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취약한 화재 예방시설, 불법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광주시 등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3~8cm 눈...당분간 추위

3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날씨 속에 아침·저녁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고 눈·비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바람도 점차 약하게 불 것"이라고 2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강우량)은 3~8cm(5mm 미만).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5~8도로 전날보다 3~5도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 바다에서 1.5~3.0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다. 모레(4일)도 아침·저녁으로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운 날씨 속에 눈·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강풍과 눈으로 2일 오후 5시 현재 여수~거문도 구간 등 14개 항로, 여객선 19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지방도 861호선 지리산 성삼재 고갯길(천은사~도계 16km)도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담뱃터 건설자재 훔친 80대 할아버지

○소일거리로 고물 수집을 하던 80대 할아버지가 1m 높이 담뱃터 넘어 건설자재를 훔쳐 팔다가 경찰서행. ○2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이모(84)씨는 지난 11월16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S물류창고 부지에 들어가 내부공사를 위해 쌓여진 건설자재(C형강) 30kg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쳐 온 혐의. ○사기 등 전과 3번으로 드러난 이씨는 미리 준비해 둔 자신의 1t 화물차에 훔친 자재를 싣는 모습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나이 먹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용돈이나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라고 진술.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림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입주층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